

가 있고 그위에 坐像을 奉安하고 있다. 實測值(cm)는 竿石 高約 三〇 平面 四〇×三六 上臺石 高約 三〇 平面 七〇×六二이다.

二、其他 遺物

藥師殿前庭에는 石燈의 八角下臺石과 竿柱만이 있는데 磨損이 甚 하나 下臺에는 伏蓮이 完全하며 竿柱上部에는 上臺石에 崙는 突起가 보인다. 蓮瓣이나 竿柱의 手法으로 보아 麗代로 推定된다. 實測值(cm)는 下臺石 高四〇 徑八八 竿柱 現高八〇 邊長一三이다. 한편 建物の 礎石으로 쓰여진 礎石도 中央에 重圈圓座가 完全한 麗代의 遺品으로 보였다.

現住持僧 吳一鐸氏말에 依하면 最近에 「明月堂」建物を 繕고 그 木材로 現「冥府殿」과 僧房三間을 세웠다는데 그 當時 다음과 같은 墨書銘이 發見되었다고 한다.

「萬行山禪院寺重葺上梁文 崇禎紀元後再乙酉即 乾隆參拾年二月初陸日 開起十四日亥時立柱三月三日戊寅戌時上樑」

蠟石製十二支像의 新例

張 南 植

慶州博物館에 慶州 忠孝里出土의 蠟石製十二支子像과 午像이 陳列되어 있는 바 이밖에도 頭部를 缺한 이와 비슷한 蠟石像 二點이 收藏品中에서 調査된 바 있어 紹介한다.

(1) 一九五四、三、二七 慶州 北面에서 出土된 것이다.

높이 三五cm 幅 二四cm 두께 一〇cm의 軟質灰白色蠟石에 神像을 浮刻하였으며 胸部 以下만 남고 上部가 斜線으로 切斷되었다. 彫刻線은 거의 上半身을 缺하여 全貌를 알 수 없으나 左手를 허리에 잡고 右手에 長矛를 잡았으며 刀痕이 刻明한 手法으로 全身에 甲冑武裝을 表

現하고 있다. 이

彫像이 左脚에 힘을 주고 右脚은 休息姿勢를 보이는 點은 흔히 있는 十二支像과 特異한 形態라 하겠다.

塔身의 神像에

는 비슷한 例가 있는

으나 墓石十二支

에 긴 장대(矛)를 든 例는 憲德王陵의 卯像 掛陵의 酉像 已像 辰像 寅像 丑像 景德王陵의 辰像 金庚信墓의 丑像 午像 皇福寺址의 丑像 亥像 등이 모두 긴 장대(矛)끝에 戈, 斧 等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右手의 火陷처럼 나부끼는 옷소매와 兩쪽 옷머의 꿈틀거리는 衣紋이 忠孝里出土의 神像과 거의 酷似함이 注目된다.

(2) 出土地 및 出土日(1)과 같음

前記의 神像과 同一한 石材로서 頸部가 直線으로 切斷되었으며 高三三cm 幅 二四cm 두께 一〇cm이다. 胸部 及 下半部의 傷痕이 甚하여 輪廓을 알아 보기 어려우나 胸部에 兩손을 모아 쥐고 있는 것으로 보아 寶珠를 갖인 像으로 認定된다.

특히 頸部에 같은 구슬이 歷歷하고 兩쪽 옷소매의 衣紋亦是 前記의 像과 거의 一致된 手法이라 하겠다.

손에 寶珠를 갖인 例는 掛陵의 辰像 左手에, 興德王陵 已像 左手와 辰像 兩手, 金庚信墓 子像 右手에서 各各 볼 수 있다.

以上 二例를 綜合한다면 忠孝里出土의 子像과 午像은 正面이고 川北面出土의 (1)은 左向인듯하니 丑、辰、未、戌、中의 어느 것일 것이고 (2)는 右向인듯하니 寅、巳、申、亥、中의 어느 것에 該當될 것으로 보겠다.

甲冑로 束身한 躍動的威風이 八世紀末新羅彫刻美術에서 볼 수 있는 바와 恰似하고 忠孝里出土의 神像과 同一한 手法으로 生覺된다.

